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19세기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8)

-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2021년) 내용 소개와 보완 -

필자는 2021년에 집필한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공저, 서울역사편찬원, 2021년 3월)을 새롭게 수정·보완해서 『상교우서』 독자와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호부터 위의 글 중 3~4절 부분과 새로 보완할 내용을 정리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위의 글 ‘3-2절 서울 목판인쇄소의 운영과 천주교서적의 유통 (3) 간행된 천주교서적의 종류와 수량, 배포 지역’의 내용 중 두 번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위의 글 ‘4장 1880년대 근대 활판인쇄소의 서울 건립’의 내용 중 첫 번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리델 주교 (제6대 조선대목구장)



코스트 신부

## 4. 1880년대 근대 활판인쇄소의 서울 건립

\* 2021년 글(253~256쪽)에서 각주와 일부 인용문을 제외했고, 한자와 추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밑줄로 표시)

### 1) 리델 주교의 서울 인쇄소 건립 시도와 좌절

1866년 교옥(敎獄, 천주교 박해)으로 조선천주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선교사제가 처형되거나 중국으로 피신하여 사제 없이 10년간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많은 신자들이 잡혀 순교하거나 깊은 산골로 피신했고, 목판본과 필사본을 막론하고 천주교서적은 몰수되어 소각되거나 분실되었다.

1866년 천주교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탈출한 리델(Ridel, 李福明) 신부는 1869년 제6대 조선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고, 중국 상해와 차쿠 등지에서 다른 선교사제들과 함께 조선 입국을 시도했다. 한편, 중국 만주대목구 지역인 차쿠(岔溝)의 성모설지전(聖母雪地殿) 성당에서 1868년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최된 조선대목구 시노드에서 선교사제들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사전과 문법서 편찬을 채택했다. 그에 따라 리델 주교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장차 조선에 입국하게 될 선교사제들을 위한 사전인 『한불자전(韓佛字典)』과 문법서 『한어문전(韓語文典)』의 편찬을 준비하였다.

이 책의 편찬 작업에는 주교와 함께 탈출했던 조선 신자들도 참여하였다. 이들의 도움으로 사전과 문법서의 편찬을 거의 완성시켜 나갈 즈음, 1876년 코스트(Coste, 高宜善) 신부가 조선대목구 선교사제로 임명되었다. 리델 주교는 조선 입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트 신부에게 『한불자전』과 『한어문전』의 원고를 넘겨 주었다. 코스트 신부는 이듬해 이 원고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인쇄소를 물색하고 간행을 준비했다.

1876년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제들[블랑 신부와 드게트 신부]이 다시 조선에 입국하여 천주교회를 재건하면서 점차 교세가 회복되자 천주교서적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1877년 9월 24일 조선 재입국에 성공한 대목구장 리델 주교는 서울 주교관에 머물면서 조심스럽게 사목활동을 시작했다. 성사 집전 외에 주교가 우선 착수한 것은 학교와 인쇄소 건립이다.

나는 얼마 전에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벌써 학생이 몇 명 되었다. [1878년] 1월 26일, 인쇄소를 차릴 집 한 채의 계약을 마무리하였고, 인쇄소의 책임을 맡기로 한 신자가 그곳에 들어와 상주하고 있으니 며칠 안으로 모든 게 가동될 예정이었다.

\* 유소연 역, 『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 - 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19세기 조선 체험기』, 2008, 살림, 51쪽.

신학교 예비생 양성과 천주교서적 간행을 위한 목판인쇄소 건립은 이전 조선대목구장인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리델 주교도 1878년 초에 학교를 세워 학생을 받았고, 인쇄소를 차릴 집과 인쇄소 담당자까지 다 마련했다. 그러나 인쇄소 건물을 마련한 지 이틀 만인 1월 28일 리델 주교가 체포되면서 인쇄소는 설립되지 못했고, 그 동안 모아두었던 책들도 소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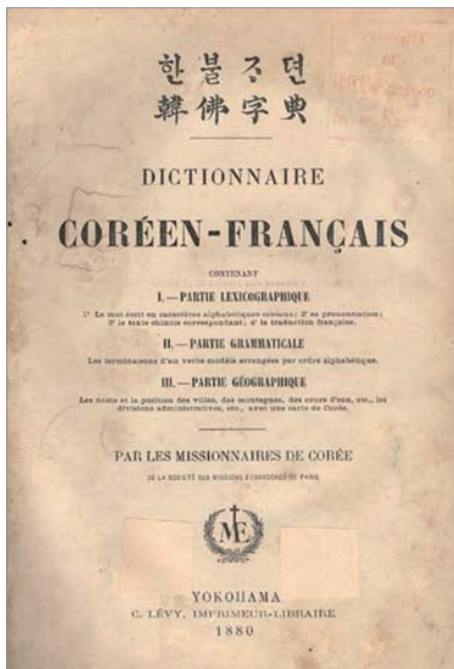
리델 주교는 5개월간 감옥 생활을 한 다음 프랑스 북경주재 공사관의 석방 운동과 청국 정부의 주선에 의해 6월 10일 석방되어 중국으로 송환되었다. 중국에 체류하게 된 리델 주교는 1878년 9월 16일자로 블랑 신부를 대목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고, 이후 블랑 신부가 조선 내의 대목구 관련 업무를 총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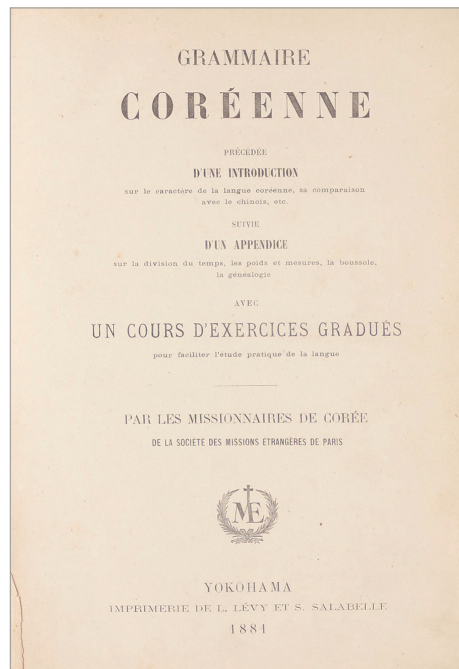
## 2) 일본에서 코스트 신부의 활판인쇄소 건립과 천주교서적 간행 (1880~1886년)

조선에 재입국한 후 선교사제들은 각 지역에 흩어진 신자들을 방문했는데 가는 곳마다 신자들이 교리와 신심서적을 요구했다. 만일 홍콩에서 서적을 인쇄해 공급해 주면 자신들이 일체의 비용을 대겠다고 제안하는 신자들이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주교서적의 간행과 보급은 시급한 과제였다.

한편 1876년 조선대목구 선교사제로 임명된 코스트 신부는 리텔 주교의 지시로 일본으로 건너가 『한불자전』과 『한어문전』의 간행을 준비했다. 요코하마에 체류한 코스트 신부는 조선어에 익숙하지 못해 사전의 최종 교정을 할 수 없었다. 1878년 중국에서 요코하마로 건너온 리텔 주교의 도움으로 원고를 탈고할 수 있었고 레비(Lévy) 인쇄소에서 1880년 12월 11일에 『한불자전』이 간행되었다. 이어서 1881년에 『한어문전』과 『천주성교공과』를 간행했다. 이후 코스트 신부는 사전 간행 준비 과정에서 조선 신자의 글씨를 본떠 만든 활자들과 새로 구입한 활자들을 바탕으로 조선대목구의 인쇄소를 설립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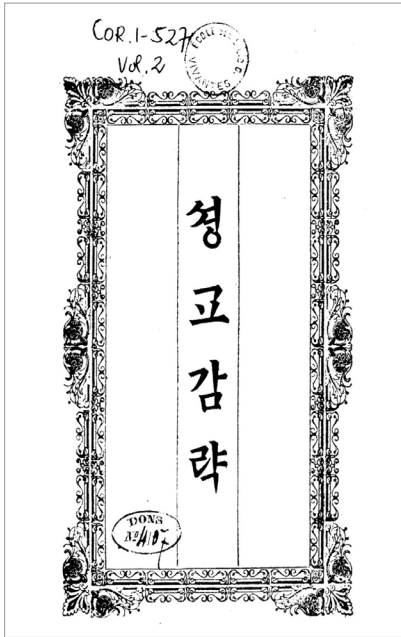
『한불자전』 (18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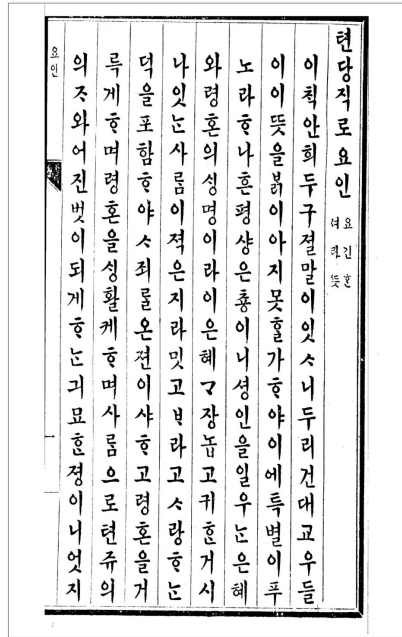
『한어문전』 (1881년)

코스트 신부는 리텔 주교의 지시에 따라 나가사키에 조선대목구 대표부(경리부)와 인쇄소 장소를 물색했고, 1881년 11월 21일에 나가사키 오우라(大浦) 천주당 안의 신학교 건물 지하 1층에 대표부(경리부)와 인쇄소를 건립했다. ‘성서활판소(聖書活版所)’로 명명된 인쇄소에서는 1882년에 『회죄직지』, 『성찰기략』, 『신명초행』, 『영세대의』가 간행되었고, 1883년에 『성교감략』, 1884년에 『진교절요』, 『천당직로』,

『주년첨례광익』, 『성교백문답』, 『성교절요』, 1886년에는 『성상경』이 간행되었다. 이처럼 성서활판소에서는 새로 한글로 번역된 서적 외에 1865년 이전 서울 목판소에서 인쇄된 서적들도 다시 간행했다. 조선대목구가 일본에 설립된 근대식 활판인쇄소에서 간행된 천주교서적들은 국내에 반입되어 신자들에게 판매·배포되었다.



『성교감략』 (1883년)



『천당직로』 (1884년)

일본에서 간행된 활판본 서적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목판본 서적들에 비해 인쇄의 품질이 뛰어났지만, 운송 비용이 높아 책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다. 블랑 신부에 의하면 동래(부산)에서 서울까지 짐꾼 한 사람이 100권 정도를 운반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30냥이 들었다. 결국 일본에서 인쇄한 책을 조선에서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해도 4냥 정도가 되어 조선 목판본의 가격(1냥 30전)에 비해 3배 이상 비쌌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블랑 신부는 인쇄소를 조선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리델 주교에게 건의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3호 원고 모집

- 투고 마감일 : 2023년 7월 31일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분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 『병인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